

법 어

여름향기로 가득한 이곳 만해마을은 대한민국에서도 벽촌이고 세계불교의 흐름에서도 먼 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곳 만해마을은 벽촌도 아니고 변방도 아닙니다. 세계의 흐름을 이끌고 사상을 이끄는 중심으로 그 위치를 분명히 하는 곳이 바로 지금의 만해마을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곳에 오늘날 이 지구촌을 밝게 하는 아름다운 인물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만해스님은 마치 넓은 연못 가운데 피어난 한 떨기 연꽃 같은 자취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해 한용운 스님을 정의할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생구제를 서원한 스님이자 사상가였으며, 시인이자 평화주의자였고, 평생을 두고 한 번도 타협을 하지 않은 운동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해스님에게 종교가라거나, 문학자라거나, 철학자라거나, 운동가라는 하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일을 했지만 어느 하나에만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님이었지만 종교를 초월하였고, 겨레를 사랑했지만 인종을 초월하였으며, 독립을 추구했지만 국경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였으며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꿈꾼 선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현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선각자들의 어깨를 북돋아주고 그 발길에 힘을 더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영예로운 만해 대상을 수상하신 수상자와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올해 제15회 만해대상을 수상하신 아누라다 코이랄라 마이티 네팔 재단 이사장 등 4분의 수상자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어가는 영웅들입니다.

대상을 수상하신 아누라다 코이랄라 님은 폭력과 인신매매에 놓여 있는 네팔 여성들을 구하는 일을 담당해온 네팔의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이미 작년에 미국 CNN으로부터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되었지만 지난 93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은 고통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속박으로부터 해방하고자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자, 지금 이 지구촌에 하생한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고학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신 헤티아랏치 교수님과 삼십년 동안 농촌 배경의 소설을 통해 현대인의 마음을 밝혀준 작가 모옌 선생님, 그리고 시조를 통해 한국인의 마음을 밝혀준 이근배 선생님은 모두 만해 스님의 삶의 모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26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처님에게서 만해스님으로 이어진 인류 평화의 가르침은 다시 오늘날 아누라다 코이탈라 이사장님을 비롯한 네 분에게로 전해지며 그 찬란한 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변방이 아닌 인류사의 중심이며, 벽촌이 아닌 부처님 마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용기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크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바뀌어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셨고, 만해 스님이 그러셨으며, 오늘 만해대상을 수상한 모든 분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위해 필요한 용기가 무엇인지 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만해 대상 수상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불기2555(2011)년 8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